

#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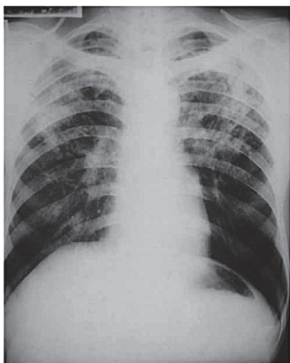
## ‘직업병클리닉’을 최초로 개원하다

### ‘보릿고개’, 협회의 어려웠던 봄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됨을 계기로 직업병에 대한 진단과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필요해졌다. 당시는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직업병 진단을 위한 특수장비나 시설이 없었고, 일반병원의 의사들은 직업성 질환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최영태 회장과 당시 조규상 부회장이 노동청과 협의하여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속 ‘직업병클리닉’을 설립하여 직업병에 대한 진료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협회는 병원 수준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재정형편이 아니었다. 협회의 재정은 동네 의원 수준의 의료기관을 간신히 차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광부에게 발견된 진폐증 X-선 사진



## ‘직업병클리닉’의 개원

이때 도움을 준 기관이 가톨릭대학 부속 명동성모병원이었다. 성모병원은 병원의 일부 공간을 협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협회는 1965년 건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9월 16일 보사부 인가를 받아 11월에 한국 최초로 직업병 진단과 진료를 위한 부설기관인 ‘직업병클리닉’을 개원했다.

직업병클리닉은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폐증의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증에 합병증이 병발하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입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노동청으로부터 위임받았다.

## 우리나라 최초 ‘직업병클리닉’으로 시작

최영태 회장 명의로 개설된 직업병클리닉은 명동성모병원 1층 101호실을 진료실로 사용하고, 2층에 폐기능검사실, X-ray촬영실을 마련했다. 간이검사실로는 예방의학교실 실험실이 사용되었다. 원장은 조규상 교수, 진료담당은 윤임중 교수(협회 제4대 회장 역임)가 성모병원의 내과 교수진과 폐결핵 전공 교수진의 협조를 얻어 실시했는데, 특히 내과의 정희영 교수와 외과의 장선택 교수의 도움이 컸다.

검사실의 업무는 산업의학연구소 병리기사 1명과 X-ray 기사 2명, 폐기능검사 기사 2명, 사무직 1명이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직업병클리닉의 기능과 업무가 늘어나자 명동 성모병원 정신과 병동 4층과 5층을 빌려 확장했다.

직업병클리닉은 노동청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허가받았고, 또 한국 유일의 진폐증환자의 진단과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직업병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 진폐증 판정, 노동청의 심의

처음에는 진폐증 1형에 폐결핵, 흉막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폐성심 등 5가지의 합병증 중 한 가지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원대상으로 규정하고, 2형, 3형, 4형에 대한 장해보상이나 입원대상자는 사업주가 선정하게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년부터 시행되어 2형 이상의 진폐증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석탄공사에서는 산하 탄광 근로자의 진폐증 환자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장해보상이나 치료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다른 광산의 진폐증 환자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었다.

노동청에서 의뢰한 이송 환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입원한 상태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고, 금요일에는 진료소견을 가지고 노동청을 방문,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폐증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을 밟았다. 진폐요양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두 가지였다. 엑스선 판독을 주로 하는 진폐증의 유형판정과 합병증 등 기타 질환과 증상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회의가 하나였고, 진폐증으로 확정된 환자의 폐기능 장애에 관한 판정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회의가 또 다른 하나였다.

## 두 개로 갈린 의견, 다수결로 판정하기도

초창기의 엑스선 판독은 서울 소재의 5개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에서 1명씩과 메디컬센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 1명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진폐증 판독 기회가 적었기에 이들 6명의 판독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자주 발생했다. 폐결핵이 합병증으로 나타난 환자의 경우는 6명의 의견이 모두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다수의 원칙에 따라 진폐증 판정을 내렸고, 필요에 따라 ILO에서 발표한 진폐증의 표준필름과 비교, 판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 좌절, 그 사이에서 배움의 필요성을 느꼈다

진폐증 환자와 1년 가까이 생활하는 동안 내 능력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다. 내가 진폐증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 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이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던 말인가? 성모병원 내과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진폐증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나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윤임중, 「과일가게 망신은 모과」, 넷북스

진폐증에 관한 책을 구할 수도 없고 지도받을 만한 선배도 없어 고민의 시간을 보내던 윤임중 교수에게 서울대학교 측의 주선으로 독일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가 생겼다. 윤임중 교수는 1967년 2월부터 4년 가까이 독일의 진폐전문병원, 호흡기질환 전문병원, 진폐연구소 등에서 연수하며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는데 온 힘을 다했다. 1971년 가톨릭대학 산업재해 병원이 개원되자 윤임중 교수는 직업병과에서 진폐증환자를 돌보는일에 전념했다.

이 직업병클리닉은 그 후 1967년 성모병원에 정신과병동이 신축될 때 4~6층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면모가 바뀌었고 확장되었다.

그리고 1972년 가톨릭대학에 '산업재해병원'이 개원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이 직업병클리닉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직업성질환의 요양의료기관이었고, 또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운영하였던 최초의 의료기관이었으며 주로 진폐환자의 진단, 요양이 그 업무였지만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의 한 토막으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이다. 🍷

### “사명감으로, 독립운동처럼 일했다”

협회가 창립 30주년(1993년)이 될 때까지 이 분야의 일은 협회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는데, 그 이유는 너무도 명백했다. 당시는 협회에서 하는 일이 수익성과는 전혀 관련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되는 사업이 아니었다.

당연히 그 당시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사명감 비슷한 것이 있어서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이었다. 마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사명감만으로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산업은 극히 기초적인 수준이었다. 고무신과 조선소 등 공장이 많았던 부산지역이 서울보다 오히려 산업체의 숫자는 훨씬 많았다. 근로자 건강진단을 할 일이 더 많았던 덕분에 당시 부산지부는 협회에서 가장 사업량이 많은 지역이었다. 근로자 건강진단이 많은 날은 하루 5백명을 치른 적도 허다했다. 정신력으로 버티던 시절이었다.…… 김준연, 협회 부산지부장

### 산업보건 하려면 ‘보릿고개’ 넘어야 했다

산업보건 부문에는 예전 살림이 어렵던 시절의 ‘보릿고개’ 처럼, 춘궁기가 있었다. 봄이 되어 새로운 회계연도를 맞아 각 산업체마다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하면 사업장에서 바로 비용을 계산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었다. 건강진단이 끝나고도 몇 달이 지나서 결제가 나는데 그나마도 석달치 어음으로 받으면 영낙없이 반년쯤 뒤에 돈을 받는 상황이었다.

자연히 건강진단을 시행한 지부나 협회는 자금이 궁할 수 밖에 없었다. 자금이 가장 많이 모자라는 봄에는 직원들 월급도 못주는 달이 비일비재했다. 이듬하여 ‘보릿고개’라고 했다. 80년대 후반까지는 정말 어렵게 일했다.

그 무렵, 부산의 모 고무신공장에서 유기용제에 중독된 종업원들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보고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렸던 일이 생각한다.…… 이채연, 협회 이사 / 인제대 의대 교수